국어사전에서의 발음표시

이 현 복

1. 머 리 말

이현복입니다. 연구부장이신 이병근교수께서 이미 주제발표를 다 하신 거나 마찬가지로 역사를 거슬러 올라가며 국어사전에 관한 이모저모를 모두 소개하셨기 때문에 곧바로 토의에 들어가도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번 20회 어학연구회의 토론회 주제를 정한 분이 제가 아니고 바로 이병근 연구부장이시기 때문에 특히 준비가 잘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워낙은 제가 주제발표를 할 생각이 없었읍니다. 여기 지금 귀한 분들이 많이 와 계십니다. 국어연구소의 김형규 소장님도 와 계시고, 또 문제안 선생님, 그 다음에 사전분야에 관심이 많으신 분들, 특히 단국대학의 동양학연구소 이강로 선생님도 계신데 최근에 거기에서도 사전에 관한 어떤 모임이 있었다고 들었읍니다. 또 이 다음에 말씀하실 분중의 한 분은, 신문에도 났읍니다만 연세대에서 아주 훌륭한 우리말사전을 Oxford사전과 같이 오랜 기간을 두고 신중하게 계획을 해서 만들어내겠다 하는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그 작업의 주동인물의 한 분이라 생각되는 홍재성 선생님입니다. 여기 발음사전을 내신 유만근 교수가 와 계신데…. 그래서 제가 사실은 유선생님께 주제발표를 부탁할까 했는데 마침 피치 못할 사정이 있으셔서 제가 그냥 맡기로 했읍니다. 오늘 이 주제는 사전에서의 발음표기 문제가 되는데 제가 준비한 내용이 있긴 합니다마는 좀 바삐 쓴 원고여서 별로 잘 되어 있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기초로 하고 덧붙여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되, 제 얘기는 가능하면 짧게 줄이고 다른 두 분이 말씀을 많이 하실 수 있도록 할까 합니다.

2. 발음표기의 필요성

그러면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보면서 말씀을 드리겠읍니다. 먼저 한국어사전에서의 발음표기는 필요한가 하는 문제입니다. 다른 두 주제는 모르겠지만 첫주제인 발음표시 문제에서는 주제의 제목에 관한 말씀부터 드리지 않을 수가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 나라에서는 사전에서의 발음표

시뿐이 아니고 일반적으로 발음에 관한 인식이 대단히 부족하고 연구도 그렇게 많지가 않았으며 언어학에서의 연구비중도 크지 않았고, 우선 전문학자가 많지 않다는 얘기를 할 수 있겠읍니다. 그렇기 때문에 발음문제를 다룰 기회가 많지도 않았고 자연히 그 문제에 소홀하게 되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그래서 한국어사전에서 발음표기를 해야 하느냐 안 하느냐 하는 문제부터 살필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물론 여기 오신 여러분들 모두 동감하시겠지만, 발음표기는 필요하겠지요. 한글은 소리글자이기 때문에 원천적으로 우리말의 소리를 어느 정도까지는 잘 나타내 줍니다. 그렇지만 한글맞춤법 즉 현행맞춤법은 한국어의 실제발음을 정확하게까지는 반영하지 못합니다. 한글맞춤법이 형태소의 원형을 밝혀서 적는 것을 원칙으로 하기 때문에 실제 소리나는 것과 맞춤법의 형태와는 좀 괴리가 있다는 것은 우리가 다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가령 '없다'고 하는 말이 있을 때, 원 글자대로 읽는다면 '어ㅂㅅ다'라고 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말을 처음 배우는 외국인은 '어ㅂㅅ다'라고 할 수도 있읍니다. 그러나 그것을 '어ㅂㅅ다'아닌 '어 : ㅂ따'고 해야 한다든지, '맑다가'를 '막따가'로 한다든지 할 때에 맞춤법에 나타나는 표기와 실제발음 사이에는 거리가 있다는 것이 사전에 발음표기를 해두어야 할 가장 큰 이유가 되리라고 봅니다. 물론 음운규칙으로 어느 정도 해결할 수 있다고 말들을 합니다. 그러나 사전은 언어학자만 보는 것이 아니라 음운규칙을 모르는 일반인도 봐야 하고 우리말을 처음 배우는 외국인도 이용해야 하기 때문에 규칙을 가지고 따질 수는 없겠읍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정서법에서는 음운론적으로 변별적인 모음의 장단도 표기하지 않습니다. 가령 '사람'이란 말이나 '없는'과 같은 낱말에 일상의 철자법에는 전연 장단표시가 되어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따로 배울 수밖에 없는 실정입니다. 여기서는 음운규칙도 아무런 쓸모가 없읍니다. 이와 같이 맞춤법과 실제발음 사이의 거리를 극복하기 위해서 한국어사전에 발음표기를 하지 않을 수 없읍니다. 그런데 그간의 사전을 돌아보면 발음표기는 범위에 있어서나 정확성에 있어서 불충분하였다 하는 평가를 하게 됩니다. 이것은 아까도 설명을 했지만 일반적으로 소리말에 대한 관심과 연구가 부족하였던 데서 그 근본원인을 찾을 수 있지 않을까 합니다. 1930년대에 나온 조선어학회의 맞춤법통일안이나 표준말모음에도 표준말의 정의는 있읍니다. 또 표준낱말의 수와 형태가 거기에 적혀는 있읍니다마는 발음을 어떻게 해야 표준이다 하는 구체적인 표시는 없읍니다. 그러므로 상당히 무책임했다는 얘기를 오늘날의 입장에서 할 수는 있지만 그 당시 일제하에서 그 정도로 해 놓은 것만도 물론 대단한 일이었읍니다. 그러나 지금 돌아보면 무언가 발음에 관한 표시가 있었어야 하지 않았느냐 하는 감이 듭니다. 1970년 초부터 문교부에서 표준

말 재사정문제, 맞춤법문제, 로마자 표기문제, 외래어 표기문제 등 이른바 4대 언어정책문제를 재검토하고 연구를 해왔읍니다. 저도 한때 그 작업에 참여를 했고 또 표준발음에 관한 실제조사를 한 적이 있읍니다. 여기 이익섭 선생이 와 계신데 그 때 우리가 같이 학술원 위원회에서 일을 한 적이 있읍니다. 왜 그 얘기를 하는가 하면 우리나라 사전에, 또는 맞춤법통일안이나 표준말모음에 전연 발음표기가 없다가 1970년 초부터 시작된 그 작업의 결과로 1978년초에 나온 시안에 표준발음의 표기가 있었읍니다. 그래서 낱말마다 표제어가 있고 그 옆에 이른바 표준발음의 표기가 되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검토하는 마지막 단계에서, 너무 실제와 거리가 멀다, 오류가 많다, 이것은 표준발음이라 볼 수가 없다 하는 항목이 많아서 상당히 오래 논란 끝에 실제 조사를 다시 한번 해보자 하는 결론에 다다랐고 결국 거기 참여했던 제가 그 작업을 맡았읍니다. 그리하여 조사자료를 만들고, 서울에서 3~4대 살던 분들 70~80명을 선정하여 녹음을 하고, 이를 바탕으로 조사, 분석한 결과를 제출한 바가 있읍니다. 공표는 안 되었는데 저 자신도 그것을 별도로 공개하지는 않았읍니다. 그 때 사용하던 책자로 이런 책자가 있읍니다. '표준발음조사표'라 해서 낱말 하나를 실제 문장 속에 넣어 가지고 가장 자연스러운 형태의 발음을 유도하고 그것을 녹음해서 분석해보자 하는 것이었읍니다. 거기서 모음의 장단, 된소리 되기, 소리의 덧남 등 5, 6개 항목을 보았읍니다. 그러나 불행히도 시간의 제약이 있어서 재사정 대상인 낱말 모두를 하지 못하고 그 중에서 특히 문제가 많다고 되어 있는 한 14% 정도의 낱말을 뽑아서 조사해 보았읍니다. 그 결과는 아까 말씀대로 공표가 아직 안되어 있읍니다. 머지 않아 그것을 발표하려고 합니다만 그 결과는 다음 장에서 간략히 말씀을 드리겠읍니다.

3. 발음표기는 표준말의 발음을 대상으로 삼아야

한국어의 발음표기는 표준말의 발음을 대상으로 삼아야 한다는 것은 너무도 당연하고 일반적인 얘기입니다. 일반적인 얘기이긴 하나 실제로는 그렇지가 못합니다. 언어의 여러 면 중에서 발음같이, 음성학적인 문제같이 문제와 갈등이 심한 것은 없다고 봅니다. 지역감정 문제가 여기에 결부되기 때문인데, 일례를 들어 제가 요즈음에 KBS에서 발음문제의 방송강좌를 합니다. 아마 우리나라에서 처음 있는 전문발음강좌가 아닌가 합니다. 그런데 거기에 대한 반응이 각각입니다. 가령 경상이라든지 또는 평안이라든지, 이런 출신지역들이 듣고 나서 하는 평이 각각 다른 거지요. 재미있다, 좋다, 도움이 된다, 이런 말이 있는가 하면 아니다, 왜 우리는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것은 전연 무시하고 일반적인 얘기, 즉 중부지역의 말씨만을 가지고

얘기를 하느냐 하는 반응도 있읍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휘나 문법적인 문제와는 달리 이것은 대단히, 영어로 하자면, delicate한 요소가 들어 있읍니다. 그러나 어쩔 수 없이 한 가지 말씨를 택해야 하죠. 결국 전통적으로 우리나라가 지켜온 말, 즉 중부지역의 방언을 표준으로 삼지 않을 수가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실제로 낱말의 발음표기가 사전마다 서로 다른 경우가 많이 있읍니다. 또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사전은 한 사람의 사전을 뒷 사람이 그냥 무조건 따르는 수가 있어서 선배의 표기가 후배의 사전편찬에 그대로 반영이 되는 그런 일도 많이 있었던 것이지요. 다음 예를 보시면 사전마다의 장단의 차이가 어떠냐 하는 문제를 알 수 있읍니다. 「문세영 사전」, 「한글큰사전」, 「이희승 사전」, 「신기철·신용철 사전」, 「정신문화원 발음사전」, 이렇게 다섯 가지를 놓고 볼 때, 가령 '감다'라는 말의 모음길이가 「문세영」에서는 전연 표시가 없읍니다. 표시가 없으니까 '감다'라고 할 수밖에 없읍니다. 또 「한글큰사전」에는 길게 되어 있읍니다. 그 다음 「이희승 사전」에 '감 : 다', 「신기철 사전」에 '감 : 다', 「정신문화원 발음사전」에 '감 : 다', 이런 식입니다. 그리고 '닮다'의 경우에는 모두 짧은데 정신문화원 발음만 '닮 : 다'로 길게 되어 있읍니다. 또 '갈다(교체)'는 '갈다(문세영), 갈다(큰사전), 갈다(이희승)', 「신기철」 '갈 : 다', 「정신문화원」 '갈 : 다' 입니다. '기술'이라는 낱말의 발음은 「문세영 사전」에서는 앞에다가 두 점을 찍는 특이한 방법을 택했읍니다. 그래서 ': 기술'로 되어 있고, 「한글큰사전」에 '기 : 술', 「이희승 사전」에 '기 : 술', 「신기철 사전」에 '기술', 「정신문화원 발음사전」에 '기술'로 되어 있읍니다. '이별'이란 말을 보면 네 사전에는 모두 '이별'로 되어있고, 「정신문화원 발음사전」에만 '이 : 별'로 되어 있읍니다. 그러니까 사전을 쓰는 사람은 어느 것을 택해서 맞다, 틀리다의 표준으로 삼아야 하느냐의 문제가 없을 수 없는 일이지요. 이같은 발음표시의 혼란이 어떻게 해서 일어났느냐에 대한 설명을 제가 세 가지로 간추려 보았읍니다. 첫째는 실제조사와 연구를 통한 표준발음의 정립이 미비했다는 것입니다. 둘째는 학자간의 주관적인 견해차이가 컸다 하는 것입니다. 학자간의 주관적인 견해차이라 하는 것은 물론 한두 가지로 요약할 수 없는 여러가지 요인이 있을 것입니다. 특정 학자마다 같은 언어자료를 보고도 그것을 분석하는 견해의 차이, 능력의 차이가 있는 것이니까 올바로 듣지 못하거나 잘못 들을 수도 있는 것이지요. 세번째는 표준발음 사용자간의 실제 발음차이입니다. 같은 서울에서 3, 4대를 살아온 이른바 표준말 사용자라 할지라도 어떤 사람은 길게, 어떤 사람은 짧게, 어떤 사람은 된소리를 안 쓰고, 어떤 사람은 된소리를 쓰고, 이런 잡다한 양상을 보입니다. 그러니까 분석·연구·조사자가 정확한 능력을 가지고 분석을 했다 해도

input이 다르니까 결과가 전연 다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 현상이 장단, 된소리, 'ㄴ'소리 덧남 등 여러 분야에서 발견되는 것을 아까 말씀드린 학술원의 조사결과에서도 다시 확인할 수가 있었읍니다. 그러므로 83년으로 기억을 합니다마는 실제 발음상태를 조사해 본 결과도 이면에 있어서 학자의 잘못도 아니고, 연구와 조사가 미비해서도 아니고, 잘했다 하더라도 이럴 수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4. 발음표기에 사용할 기호의 선택

국어사전에 발음을 표기한다 하면 어떤 기호로 하느냐? 발음표기는 우리 한글자모로 할 수도 있고 또는 국제음성기호(IPA)로 할 수도 있을 거고 또는 그 밖의 기호를 도입해서 이용할 수도 있겠읍니다. 그런데 제 생각으로는 한국에서 한국인을 위해서 출간되는 한국어사전에서는 한글기호로 적는 것이 가장 이상적이라고 생각합니다. 한국인에게는 로마자를 바탕으로 한 국제음성기호나 그밖의 외래기호보다는 한글기호가 판독을 하고 발음하기에 훨씬 쉽기 때문입니다. 또한 한글기호를 사용한다고 해서 표기의 정밀성이 떨어지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부분적으로 한글기호로 적을 수 없는 미세한 소리의 차이는 몇몇 특수기호를 별도로 도입해서 적을 수가 있을 것입니다. 한글로 표기한다는 것은 한글을 음성기호화한다는 뜻이겠읍니다. 한글을 일종의 음성기호로 써서 우리 발음을 표기한다는 뜻이지요. 한글에 의한 발음표기의 정밀성을 높이려면 모아쓰기보다는 풀어쓰기가 더 바람직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것은 큰 논란의 대상이 될 수 있는 문제라고 볼 수 있읍니다. 모아쓰는 방법, 풀어쓰는 방법은 여러분들이 다 아시는 내용입니다. 가령 '살 : 다' 할 때 '살' 다음에 두 점을 찍어서 길다는 표시를 하기도 하고, 한글학회 「큰사전」처럼 위에다가 선을 긋는 표기방법도 쓰는데 모두 일장일단이 있읍니다. 제가 발음표기는 한글로 하되 풀어서 적는 것이 좋겠다는 말씀은 음절을 풀어서 옆으로 한 줄로 표기하는 것이 좋겠다는 뜻입니다. 그것은 그냥 보기 좋으라고 하는 것은 아니고, 그냥 보통대로 모아써도 아무 큰 지장은 없지만, 이유를 따진다면 '살'이라는 음절 다음에다 두 점을 찍으면 약속을 하기에 따라서는 '모음이 길다'는 뜻이라 하면 되지만, 때에 따라 자음만을 길게 할 필요성이 있는데, 그럴 때 구별을 할 수가 없읍니다. 따라서 '사ㄹ : '한다는 뜻인지 '사 : ㄹ'한다는 뜻인지 알 수가 없읍니다. 그렇기 때문에 긴 소리 바로 다음에 길다는 표시를 해준다라는 원칙이라면 '아'모음의 소리가 길다라는 뜻을 명확하게 나타낼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이 좋지 않은가 합니다. 가령 '물이 철철 넘친다'는 말을 할 때, '물이 처얼처얼 넘친다'는 말도 있을 수 있겠지요. 그러나 '물이 처ㄹ : 철

넘친다' 할 때 정밀표기를 하면 모음은 짧고 자음인 설측음이 깁니다. 이런 것을 정밀하게 나타내 주려면 종래대로 모아써서는 제대로 구분이 잘 안 되고 또다른 방법을 택해서 설명을 해줄 수밖에 없겠지요. 요컨대 모아쓰는 경우에는 모음이 긴지, 바로 앞의 자음이 긴지 얼른 분간이 안됩니다. 지금 사전을 새로이 만드는 작업들을 여기저기서 서두르고 있고, 또 해오고 있는데, 제가 알기로 한글학회 「새사전」의 편찬작업이 지금 벌써 10여년 이상 진행되어 오고 있읍니다. 거기서는 발음표기를 풀어쓰기로 결정을 한 바가 있읍니다.

5. 표기의 정밀도와 표기체계

발음표시를 얼마나 정밀하게 해야 되느냐, 그 다음에 표기체계는 어떠한 체계를 써야 되느냐의 문제입니다.

발음표기는 음성학적인 정밀표기보다는 간략표기, 즉 음소위주의 표기가 바람직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간략표기는 기호의 경제성과 가독성이 우수하기 때문입니다. 음소위주의 표기를 해놓으면 읽기가 쉽습니다. 한국사람이 특히 한글로 써놓은 것을 읽을 때에는 로마자나 IPA글자로 쓴 것보다는 훨씬 읽기가 쉽습니다. 정밀표기를 했을 때, 즉 위, 아래에 점을 찍고 '+'와 '—'를 붙이고 '°'를 더해서 누더기가 되어 있을 때 표기 자체는 대단히 정밀합니다. 그러나 그것을 음성학자, 언어학자가 아닌 사람이 얼마나 읽어내 주느냐가 문제입니다. 사전에서 음소표기 정도의 내용을 가지고 발음을 정확하게 잘하기 위해서는 별도의 음성훈련을 받아야 하지 음성훈련 없이 표기만 잘 했다고 해서 올바로 읽히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밀(narrow) 표기와 간략(broad) 표기 중에서 간략표기가 더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변이음(allophone)을 자세하게 적어내는 정밀표기는 복잡하고 난잡해서 실용성에서 떨어진다고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외국의 경우가 대개 그렇습니다만 간략표기를 원칙으로 하고 변이음의 소리값은 규칙이나 약속으로 처리하며, 필요에 따라서는 몇 가지 특수기호를 사용해서 특수한 발음을 적을 수 있지 않을까 합니다. 한글음성문자는 특수기호를 활용한 예입니다. 제가 15, 6년전인 71년인가에 발표를 한 적이 있고, 그것을 구상하기 시작한 것은 20여년이 훨씬 넘었읍니다. 현행 우리 한글글자가 세계적인 언어학자, 음성학자들이 모두 찬탄을 아끼지 않는 문자이지마는 현행 글자 그대로는 음성문자로 쓰기에 좀 부족하지요. 그래서 몇 글자를 더 유도해냈읍니다. 이것은 세종대왕의 생각을 그대로 적용해서 끌어낸 것입니다. 그래서 국제음성문자에 버금가는, 그리고 우리 한국인이 쓰기에 훨씬 더 유리한 글자를 만들어 보았읍니다. 왜 유리하냐 하면, 글자 자형이 같아서 조금

씩 변형만 가하면 대체로 무슨 글자라는 것을 알 수 있기 때문입니다. 가령 제가 만든 체계에서는 'ㄱ, ㄷ, ㅂ'을 무성으로 고정을 시키고 그 다음에 유성의 'g, d, b'는 무성의 'ㄱ, ㄷ, ㅂ'에 선을 하나씩 더 그어서 'ㄲ, ㄸ, ㅃ'을 이끌어 냅니다. 이것은 조음음성학적으로 성대가 닫혀 있는 모습입니다. 옛날의 삼각형 기호 [△]을 유성의 [ㅅ]이라고 흔히 해석을 합니다마는, 저는 이 [△]의 아래선이 성대의 진동을 위한 목청의 닫힘으로 보고 그것을 조금 더 연장한 것입니다. 그래서 'ㄱ, ㄷ, ㅂ'에다 선을 하나더 그어서 'ㄲ, ㄸ, ㅃ'을 만들었기 때문에 특별히 유성음을 나타낼 필요가 있을 때 이를 쓰면 편리하다고 봅니다. 영어에서 k와 g는 자형에 있어서 전연 관계가 없고 공통성이 없읍니다. 그런데 우리는 눈에 익은 글자에서 필요한 다른 기호를 유도해낼 수 있읍니다. 그리고 [ㄹ]은 'ㄹ'에서 선을 하나 떼어내서 '아리랑'하는 'ㄹ'소리, 즉 튀김소리(flap)로 고정을 시켰읍니다. 그리고 보통 'ㄹ'소리는 소위 굴림소리 [r]의 음성기호로 씁니다. 완전히 막힌 기호 [ㄹ]은 설측음 [l]을 나타내는 소리로 쓰기 때문에, 모두 혀끝으로 내는 치조음이지만 구별을 할 수 있는 방법이 마련되어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방법으로 **한글음성문자**를 활용해서 우리말, 영어, 프랑스말, 독일어, 이태리어 등을 적을 수 있읍니다. 여기에 직접 관련된 것은 아니니까 나중에 관심 있으신 분은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6. 발음표기의 범위

그 다음에는 발음표기의 범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읍니다. 이 문제는 어떤 내용을 표기해야 되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장단문제가 물론 제일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된소리, 그 다음에 덧남의 문제 등 여러가지가 있읍니다. 소위 중요성의 정도에 차이가 있을 줄 알지만 우선 세 개를 든다면 이 순서대로 중요하지 않은가 생각을 합니다.

7. 강세와 리듬의 표시

강세와 리듬의 표시는 별로 논의가 안 되는 문제인데, 제가 보기에는 없어서는 안 되는 중요한 문제라고 봅니다. 우리말의 표준발음을 완전하게 표시하기 위해서는 낱말의 강세와 리듬을 표시할 필요가 있읍니다. 그렇지 않으면 자연스러운 발음형태를 나타내고 재생할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가령 '사람'할 때에는 물론 '사'가 긴 소리입니다만 거기에 강세가 놓이고, '연구소'는 '연'에 강세가 있읍니다. '사다리'할 때는 'ˈ사다리'하지 않고 '사ˈ다리'해서 '다'가 세게 나는데, 저는 이것에 대해 '돋들린다'는 말을 씁니다. 이 술어는 제가 만든 것입니다. '돋들린다'는 것은 '돋보인다'는 것에

서 유추해서 만들었읍니다. 그래서 '사다리'에서 '다'가 돋들린다, 즉 앞뒤 다른 것보다 더 크게 들린다고 하고 '사ˈ다리'로 발음하는 것이 옳다는 것을 보여주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가시겠소'할 때에 '가', '시', '겠', '소'의 네 음절 중 어느 음절이 가장 돋들리며, 또 그렇게 발음을 해 주어야 표준말이라 할 수 있느냐 하는 얘기를 할 수 있겠읍니다. '가시겠소' 할 때에 'ˈ가시게쏘'하지 않지요. '가ˈ시게쏘'하지 않습니다. '가시ˈ게쏘'라고 합니다. 그게 가장 자연스런 발음이라고 볼 수 있읍니다. 그래서 이런 표시가 발음사전에, 특히 우리 한국어의 사전에 표시되어야 하지 않느냐는 생각을 가지고 있읍니다. 그 밖의 문제로는 홀소리값에 관해 '어'라든지 '으'라든지 '위'라든지 하는 것이 있고 또 복합어에서의 장단 및 강약문제 등 여러가지 문제가 산적해 있읍니다. 이것은 누구 혼자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이 정도로 그치고 혹시 나중에 토론시간에 무슨 논의가 되면 제가 아는대로 제 의견을 말씀드리겠읍니다. 시간을 너무 잡아서 대단히 죄송합니다. 감사합니다.

ABSTRACT

Representation of Pronunciation in Korean Dictionaries

Hyun-Bok Lee

The Korean spelling system, which is in principle morphologically oriented, is not necessarily a reliable and consistent guide to the standard pronunciation of Korean. For example, it does not show the difference in vowel length which is phonologically significant, as in the pair of words /mal/ 'horse', /ma:l/ 'language'. Hence the need for representing pronunciation in Korean dictionaries.

However it may be fair to say that the need for marking the pronunciation of Korean words has been neither seriously felt nor adequately met in most dictionaries published in Korea. The writer strongly feels that pronunciation should be adequately marked in all Korean dictionaries according to the following principles:

1) The Korean alphabet should be adopted to represent the standard pronunciation since it will be easier to read than the IPA or other phonetic symbols for Korean readers.

2) A Phonemic transcription is preferred to a Phonetic one to guarantee optimal 'readability'.

3) The Linear Writing System is preferred to the Block Writing System since it helps represent the pronunciation more accurately.

4) The features of pronunciation to be represented in dictioanries are:

a) Vowel length, b) lenis-fortis distinction,
c) consonant insertion, d) stress and rhythmic feature,
etc.